



화장품 정리함 부터 LED조명까지... '화장대테리어' 확산 L1



Life

셀트리온  
집펜트라  
블록버스터 기대감 L2



# “트로트, 인생 히로애락 담아... 아픔 위로하는 노래 할 것”



새벽을 여는 사람들

## 가수 정들레

가수 정들레는 개그부터 노래까지 다양한 무대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방송인이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이룬 그는, 지금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라는 장르로 시작한 가수로서의 행보를 통해 그는 세상과 소통하는 가치와 삶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수 정들레는 학창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 즐거웠다. 가요제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꿈을 키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당시 개그맨 컬투가 진행했던 인기 프로그램 '심심풀이'에 출연한 경험은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방송에서 자신이 가진 끼를 발산한 그는 그 자리에서 1등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날 방송 관계자가 레크리에이션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가능성이 커 보이니, 졸업 후 방송에서 또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그를 응원했다.

실제로 가수 정들레는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과에 입학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간직해 온 꿈의 크기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음악만 본격 전공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 시험에서 그는 자신의 장기인 음악적 재능을 적극 활용했다. 보컬 실력에 주부 가요 교실의 특징을 표현하는 연기를 재치 있게 더해 실기 시험을 통과했다.

이후 대학 생활에서도 선배와 교수님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OBS 공채 1기 개그맨 시험도 주변의 권유로 응시했다. 그 결과, 그는 지난 2008년 OBS 공채 1기 개그맨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OBS는 공채 1기 개그맨을 개그를 나누고 아끼는 리더들이라는 의미인 '개나리'로 선보인 바 있다.

그는 "학교 생활은 지금 떠올려봐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선배들이 저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고 저만의 매력을 찾도록 도와줬기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스스로도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4월 미안마에서 열린 민잔 축제의 '코리아 미안마 국제 교류 콘서트'에서 가수 정들레가 K트로트를 알렸다.



가수 정들레.



OBS 공채 1기 개그맨 선발대회서 '우수상' KBS 아침이 좋다 등서 리포터 활약 하기도

트로트, 친숙하고 누구나 따라 부를수 있어 대표곡 '소주각' 작사·작곡 후 5년만에 완성

개그·노래·리포터·라디오DJ 등 활동 넘어 족구협회 홍보대사 탕탱걸스 등 경력 쌓아

를 가졌다"고 말했다.

개그우먼으로 데뷔하고 OBS의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해 KBS 아침이 좋다, MBN 생생정보마당, YTN 최강기업 등에서 리포터 활동을 활발히 한 그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소통 방식이 큰 힘이 됐음을 강조했다.

2018년에는 첫 싱글앨범 '안녕 내사랑'을 발매하며 트로트 가수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트로트는 분명 어

렵지만, 다른 장르에 비해 가사와 멜로디를 쉽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면 팝송이나 상송은 온전한 뜻이 와닿지 않고, 랩은 따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트로트는 가사에 인생의 히로애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담아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멜로디도 누구나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로트만의 친근함에 집중했고, 트로트가 음악의 한 장르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표곡 '소주각'도 그가 추구하는 트로트의 정체성을 실현한 작품이다. 이 곡은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인데, 편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8마디가 비어 있는 등 화성학적으로 불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정홍민 작곡가를 만난 소주각은 다시 완성됐다. 정홍민 작곡가는 소주각을 있는 그대로 다듬어, 빈 마디를 채우지 않은 원곡을 살렸다.

가수 정들레는 "지금 당장은 남들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혼자 속으로 견디는 것은 힘들지만, '소주각'처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소주각이 이런 비하인드스토리를 가진 것처럼 아픔을 위로하는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발견하게 되는 일상 속 소재들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며 "모든 것이 평범하게 존재해 소외될 때도 있지만 평범함 속에도 특별함은 숨어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행운을 상징하는 주제로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

가수 정들레는 올해로 방송 활동 17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개그, 노래, 춤 등을 두루 갖춰 리포터, 가수, 라디오 DJ, 흡소핑 쇼호스트 등으로 활동 영역의 폭을 넓혀왔다. 방송 활동 외에 대한민국족구협회 홍보대사 탕탱걸스, 마포소방서 명예소방관 등의 경력도 쌓았다.

그는 "족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민속경기 운동이다. 탕탱걸스 활동 중에 '족구'를 해외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적이 있다. 베이스볼을 야구로 번역한 것처럼 족구도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족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며 "대권도나 감치처럼 족구도 세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가수 정들레는 지치지 않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감사함과 책임감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 생활, 각종 시험, 방송 활동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대 위에서 제 삶이 흘러왔는데, 모든 과정에서 저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며 "저를 지켜봐준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이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제가 가수로서 저를 크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그의 내향적인 성격도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밖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는 "일 자체에 몰입하고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행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망동하지 않으려 명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로 결국 대중에게 신뢰받는 방송인과 가수로 남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해 연말 파주를 방문한 가수 정들레는 한국공무리봉사단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동참했다. /가수 정들레 소속사

### 메트로 한줄뉴스



▲빙속 여자 팀 스프린트 금메달...김민선·이나현 2관왕  
▲중국과 잇단 충돌...쇼트트랙 남녀 계주 '노메달'  
/사진 뉴시스

▲여자 컬링대표팀, 첫 경기서 대만에 11-0 대승 거둬  
▲이상혁 2025년 산뜻한 출발...첫 대회서 2m31로 우승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 남자 회전 종목서 은메달  
▲16세 박윤재, 로잔발레 콩쿠르서 韓 남성 첫 우승